

내장산 인생샷 성지로 오세요



정읍시가 '2022년 내장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내장산 생태공원 내에 설치한 '단풍터널'.

정읍시, 2억1700만원 투입
사진 찍기 좋은 명소 찾아
천국의 계단·단풍터널 시설물
관광객들에 휴식처 제공

정읍시가 내장산생태공원 내에 설치한 사진찍기 명소가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새로운 휴식처가 될 전망이다. 정읍시는 '2022년 내장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2억1700만원을 들여 내

장산생태공원에 '천국의 계단'과 '단풍터널'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설치된 시설들이 내장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별한 추억만들기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국의 계단'은 전선이나 오름의 방해 없이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을 배경 삼아 사진 찍기 좋은 명소다. 일출과 일몰 시간대에는 태양 빛이 그려내는 따뜻한 색깔을 담아낼 수 있으며 낮 시간에는 바다보다 깊은 파란 창공을 캔버스 삼을 수 있다. 특히 하얀 몽게구름까지 등장하는 날이면 더욱 특별한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다.

'단풍터널'은 울긋불긋 화려한 내장산의 단풍나무 터널길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높이 3m, 길이 18.5m로 단풍터널은 투명 채광판에 새겨진 단풍무늬가 햇빛에 반짝이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특색을 갖고 있다. 비와 햇빛을 피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단풍터널 내 9개의 벤치도 갖춰졌다. 정읍시 관계자는 "포토존 조성이 내장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장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휴식과 힐링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전북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17년 방치' 남원 효산콘도 새 주인 찾을까

30여차례 공매 모두 유찰
시, 23일까지 공매 진행
"몇 곳에서 문의" 낙찰 희망

남원시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전북 남원 '효산콘도'에 대한 공매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첫 공매를 실시한 이후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남원시는 효산콘도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30여 차례의 공매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다시 결실한 투자자를 찾기 위해 지난달 30일 공매가 시작돼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효산콘도는 1991년 남원 신촌동에 지하 2층, 지상 9층, 285실 규모로 건립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숙박업소로 기능해왔으나 경기 불황과 모기업의 부도로 지방세 등을 체납하며 2005년 9월 관광숙박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등록이 취소된 이후 17년이 흐른 지금까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있어 안전사고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그간 계속된 유찰로 첫 공매는 34억1760만원으로 시작되고 응찰자가 없어 공매가 계속 진행될 경우 최종 4차에서는 21억3600만원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현재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효산콘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를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으로 선정해 새로운 사업목적에 맞게 현실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남원 효산콘도.

있도록 관련 부서에 강력한 주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의원 의정활동비 '동결'

의정비심의위 2023~2026 의정비 결정... 연봉 3593만원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4차례의 심의를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하기로 했다.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의원의 향후 4년(2023~2026년) 간 한 해 의정비는 총 3593만원(월 299만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월 110만원(연 1320만원),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가 적용된 월 189만4820원(연 2273만원)이다. 2024~2026년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심의위원회는 전북지역 타 시·군 의정비와의 격차 등을 고려해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20% 인상하기로 잠정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등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1.4% 인상액을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과 급격한 물가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농기센터, 농가 경영개선 평가 '최우수'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주관 '농가 경영개선사업 평가'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강소농 사업의 교육성과와 자율모임체 활동 등에 대해 진행됐고 농업기술센터는 두 사업을 진행하며 탁월한 성과를 내 좋은 평을 받았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의 강소농 교육은 올초 코로나19의 대유행 때에도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됐고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된 뒤에는 정보화교육장에서 랜딩페이지

제작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펼쳐졌다. 이어 자율모임체 활동 역시 팜파티와 프리마켓을 운영해 성과를 냈고 마케팅 교육의 일환으로 정보화 교육의 기초, 중급, 심화, 왕초보반을 운영하며 농가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소농 교육생들의 소득증대와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남원시 강소농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한국갈등전환센터 수행기관 선정

고창군이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갈등전환센터(대표 박지호)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고창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 일자리 모델과 기업 유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예산 1억 1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1차 노사민정 사회적대화를 개최하고 김종학 기업인협의회장, 김영창 고창군 주민자치위원장, 한선우 청년벤처스 회장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상황과 필요한 일자리 비전, 기업 유치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 더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민 400명을 대상으로 11월4일까지 정보제공형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영운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업과 일자리는 무엇인지 의견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대화 기구를 마련해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